

## 이인범 목사

(출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2017) pp75-77)

<도쿄 그리스도인> 1935년 6월호에 따르면, 이인범은 이미 19세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국 기술교육대 건축학부 김기주 교수의 글, '20세기 초 4칸(4×4칸) 교회의 평면구성 및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에 실린 각주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이인범은 황해도 곡산사람으로서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에도 곡산 사람으로 나옴)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으며, 192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경안교회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에 부임되었다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다. 1924년에는 동막교회로 전근되었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 [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7쪽.] 이 무렵 이원균은 동경 요츠야선교부의 서울 선교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성결교회에서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와 10여년 가깝게 요츠야선교부 산하 조선기독교회들의 발전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웠다. 그는 커닝햄이 자신을 '신약성서기독교로 조선을 정복할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 이라며 열광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긴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성결교에는 두 곳이나 남아있다. 한곳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96번지에 남아있는 북옥성결교회당이다. 이 교회당은 초기 한옥교회로써 이인범 전도사가 1922년에 부임하여 1923년에 건축한 대지 92평에 건평 36평으로 지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정사각형 한옥교회당이다. 강단을 중심으로 2개의 큰 기둥이 남녀를 구별해 '칸막이'로 예배드리는 형태이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4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감리교회가 1953년에 매입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원래의 주인인 성결교회 측에서 다시 사들여 보존하고 있다.



이인범 전도사가 1923년에 건축한 북옥성결교회당(등록문화재 42호,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96번지)

두 번째 흔적은 인천 송현성결교회(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7-2번지)이다. 이인범 목사가 개척한 곳은 아니지만, 동경 심천조선기독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시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 탐방을 위해서 1932년 8월 1일 한국에 들어왔고, 요츠야선교부의 서울 선교기지의 정삼선 집사가 개척한 이곳에서 8월 21일에 9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곳이다<1932년 9-11월호>.

1930년대 송현기독교회(현 송현성결교회)는 인천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모 교회였고,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 마이클 셸리, 히치,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쉼멜, 오웬 스틸 등이 다녀간 곳이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다.